

서울특별시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3089 |
|------|------|

2025. 9.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9. 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김태희)

1. 제안이유

- 산림박물관은 서울시 내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 서울시의 문학 중심지이자 시민과 문학인이 중심이 되는 문학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로,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받는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산림문화관 관리 및 운영

나. 시설개요

- 시설명: 산림문화관
- 소재지: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길 65
- 시설규모: 대지 1574.7㎡, 연면적 596.39㎡
(산림문화관 지상 2층, 주차장)
- 주요시설: 프로그램실, 강당, 사무실 등
- 개관일자: 2026. 4월(예정)

다. 위탁기간: 2026. 3. 27. ~ 2028. 3. 26.(2년)

라. 2026년 예산요구(안): 285백만원

마. 위탁사무

- 산림문화관 시설 관리 총괄(운영, 안전, 유지보수 등)
- 문학 행사(전시, 시상식, 강연 등)를 위한 공간 제공 및 행사 지원
- 시민 대상 문학프로그램 기획·운영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적격자심의위원회)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본 사업은 시민·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프로그램실, 문학 행사를 위한 대형 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문학예술 플랫폼 운영을 통해 문학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 문학은 예술 분야의 원천이 되는 기초예술의 핵심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기존 문학 향유자인 시민들이 창작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문학인들의 실제 수요에 맞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학 관련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역량있는 민간 기관을 선정·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민간단체에 대한 수익허가 및 보조사업으로 운영해 왔던 산림문학관에 대하여 수익허가기간 만료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산림문학관 현황

- 산림문학관은 현재 운영 중인 ‘문학의 집’의 별관으로, 2005년 11월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이하 (사)문학의집)이 기부채납을 통해 2026년 3월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문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문학의 집 사용허가 경위 >

- 2001.6.13. : 구(舊) 안기부공관 활용계획(시장방침 제666호)
- 2001.10.26. :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 설립(서울특별시 허가)
- 2001.10.26. : 문학의 집·서울 본관 준공 및 개관식
- 구 안기부공관 리모델링하여 문학의 집·서울 본관으로 활용
- 2001.7.12. : 문학의 집 서울 본관 사용 허가
- 2005.11.5. : (사)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 허가(~'26. 3. 26.)

-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공관이었던 ‘문학의 집’ 본관은 앞선 2001년 10월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되어 오다 (사)문학의집이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한 사실이 확인돼 2022년 6월 서울시는 본관 및 별관인 산림문학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음.
- 그러나 (사)문학의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은 기존 사용허가 만료일인 2026년 3월 26일까지 (사)문학의집이 계속 운영하게 되었음.

< 사용허가 취소 및 쟁송 주요경과 >

- '22.2. : (사)문학의집 불법 전대행위 및 보조금 부정사용 등 민원 접수
- '22.6. : (사)문학의집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통보
- '22.7. : (사)문학의집 행정심판 청구('23.1. 행정심판 청구기각)
- '23.1. : (사)문학의집 행정소송 제소('23.1.) 및 집행정지 인용('23.2.)
- '23.6.~'24.2. : 행정소송 1차~4차 변론 ※ 1차('23.6.), 2차('23.10.) 3차('23.12.) 4차('24.2.)
- '24.4.18. :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서울시 패소)

- 다만, 본관의 경우 사용허가 취소 이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허가 만료일(2022. 11.)이 도래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신규 사용자를 모집하였으나 7회 유찰되었고,

대비책으로 서울시는 ‘문학의 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제320회 임시회(2023. 9.)에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개보수가 잦았던 본관에 대해 안전구조진단 용역을 추진하였음.

-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에 민간위탁금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사)문학의

집의 사용허가 만료 이후 재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본관은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 '문학의 집' 시설 현황 >

□ 시설현황

- 위치: 중구 퇴계로26길 65 등 3필지
- 규모: 대지 2,368.4㎡, 연면적 1,088.33㎡
- 운영방식: (현)사용허가 → 민간위탁 전환(추진 중)
- 시설현황

| 구분 | 본관 (舊안기부공관) | 산림문학관 | 주차장 |
|------------|------------------------------------|--|-------------|
| 소유자 | 건물, 토지 서울시 소유 | 건물: 기부채납 / 토지: 서울시 소유 | |
| 규모 | (대지) 793.7㎡, (건물)491.94㎡ | (대지) 680.5㎡, (건물)596.39㎡ | (대지) 894.2㎡ |
| 사용허가 기간 | '19.7.12.~'22.11.30. (3년마다 재계약) | '05.11.5.~'26.3.26. (기부채납에 따른 20년 무상사용) | |
| 운영현황 | 운영 중단 | (사)자연을사랑하는문학의집·서울 사용 중 | |

- 또한, 안전구조진단에서 'D등급'¹⁾을 받은 본관의 사용을 제한하고, 신축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24년 의뢰한 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건축물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자문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는 2028년 4월 재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 별관인 산림문학관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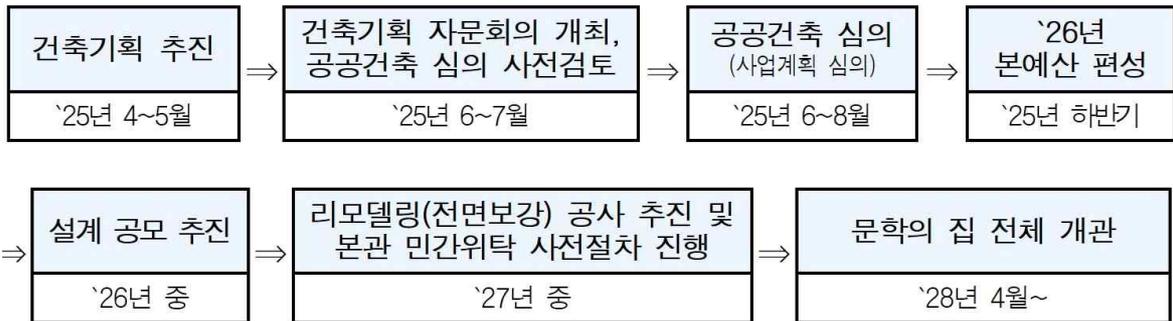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2026년 3월 27일부터 2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2028년 본관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임.

< '문학의 집' 본관 리모델링 추진계획 >

- 사업내용: 문학의 집 본관 리모델링을 통해 문학인과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복합 문학 공간 조성 및 운영
- 소요예산: 3,488백만원(예정)
- 추진절차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는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호로써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가 의뢰한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사무에 관한 적정성 검토는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에서 부대 의견 없이 '적정' 결과를 통보받음2).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붙임1) 및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붙임2) 참조

- 검토사항 중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대상 사무가 일반용역, 사용허가, 보조사업, 대행, 투자·출연기관 고유사무 등으로 수행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는 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및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는 하나 출연금 증액 및 인원 증원으로 조직의 비대화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밝힘.
- ‘문학의 집 서울’은 개관 이후 시민과 문학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서울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사용허가 취소 전인 2021년까지 39억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24년에는 보조금 없이 운영한 결과 1만 1천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문학의 집 서울’ 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천원)

| 연도 | 지원액 | 연도 | 지원액 | 연도 | 지원액 |
|-------------|---------|-------------|---------|-------------|---------|
| 2004 | 58,659 | 2010 | 285,000 | 2016 | 242,400 |
| 2005 | 70,000 | 2011 | 241,580 | 2017 | 212,000 |
| 2006 | 200,000 | 2012 | 257,000 | 2018 | 224,000 |
| 2007 | 285,000 | 2013 | 231,300 | 2019 | 207,000 |
| 2008 | 285,000 | 2014 | 212,400 | 2020 | 207,000 |
| 2009 | 285,000 | 2015 | 212,400 | 2021 | 207,000 |

< 2024년도 '문학의 집 서울' 프로그램 현황 >

| 연번 | 프로그램명 | 날짜 | 장소 | 추진 내용 | 참여인원 |
|----|------------|-----------|--------|---------------------------------|---------|
| 합계 | | | | | 11,085명 |
| 1 | 소식지발간 | 격월간 | 산림문화관 | 자금난으로 매월 발행하던 월간 소식지는 격월 발행 | 1,200부 |
| 2 | 금요문학마당 | 격월 셋째 금 | 1층중앙홀 | 작고 문인 제조명 연4회 | 330명 |
| 3 | 남산음악당 | 매월 수 | 1층중앙홀 | 시민과 문인들이 함께하는 우리 가곡 부르기 및 발표회 | 380명 |
| 4 | 수요문학광장 | 매월 넷째 수 | 1층중앙홀 | 생존 문인을 초청하여 작가의 문학세계와 작품배경 듣기 | 300명 |
| 5 | 시창작 | 매월 목 | 2층세미나실 | 공광규 시인의 소학교, 어른과 시 쓰는 법 | 480명 |
| 6 | 우리숲꿈모전 | 10월~12월 | 전국 | 작품 공모전 (전국 중·고·대·일반부) | 586명 |
| 7 | 책자발간 | | | "숲" 꿈을 부른다, 숲사랑과 인간에게 주는 숲의 유익성 | 500명 |
| 8 | 시낭송반 | 매월 목 (2시) | 2층세미나실 | 좋은 시를 골라 시낭송인 및 시민이 함께 시를 읽고 감상 | 1,845명 |
| 9 | 우리 가곡 부르기 | 수 2시 | 1층중앙홀 | 시민과 문인이 함께하는 우리 가곡 부르기 | 410명 |
| 10 | 좋은수필 읽고 쓰기 | 매월 수 | 2층세미나실 | 강사 박덕규 소설가 | 144명 |
| 11 | 전국순회 문학특강 | 년 3회 | 지방문화관 | 한용운 기념관, 이효석 문학관, 김달진 문학관 | 300명 |
| 12 | 기타방문객 | 수시 | | 전국에서 남산 문학의 집을 찾아오는 단체 및 시민 | 4,610명 |

- 「산림문화관 민간위탁(신규) 추진계획」('25. 6. 25.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 시민 대상 문학프로그램 기획·운영 ▲ 문학 행사(전시, 시상식, 강연 등)를 위한 공간 제공 및 행사 지원 ▲ 지역 내 예술가·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소통 촉진 등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
- 해당 사업은 지난 20년간 보조사업으로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설 관리 업무와 분리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통해 일반용역 또는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본관 리모델링 완료 후 운영방향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민간위탁의 지속성 또한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바 민간위탁 운영의 당위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업화에 대하여 현재 서울문화재단은 입주 작가 지원사업인 연희문창작촌을 고유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 민간위탁사무의 성격과 다르다는 점을 사유로 서울문화재단에 사업을 이관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현재 서울문화재단은 연희문창작촌 외 예술창작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문학 분야 지원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며, 본관 리모델링 이후의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문학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수 계획하고 있는바 서울문화재단의 수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본관 리모델링 이후(28. 4.) 시설연계 운영방안 >

| 구 분 | 문학의 집(본관) | 산림문학관(별관) |
|-----------|---|--|
| 시설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관련 전시, 아트워크 전시실 · 사무실, 카페 및 라운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행사 개최가능한 이벤트홀 · 문학 연구 및 교육공간실 |
| 프로그램 연계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와의 대화, 독서 모임 · 전시실 대상별 맞춤형 도슨트 투어 · 연령별 문학작품 기획 프로그램 상영 · 기획 전시, 문학 자료실 등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대규모 세미나, 시상식, 학회 · 작가 강연, 창작 성과발표회 · 작품 낭독(시 낭송 등), 콘서트 행사 등 · 자연과 문학의 접목 프로그램 운영 · 창작 소·중그룹 교육(문학 스튜디오) |

- 서울문화재단은 2025년도 사업으로 무려 14개의 사업을 수탁 중인 상황으로, 출연액인 54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963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위탁사업의

통폐합 또는 조정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위탁업체 선정 시 경쟁 원리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면서 다수의 문화재단을 수탁기관 후보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서울문화재단의 수탁 가능성과 당위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바 관련 검토의견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민간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 기간이 짧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확실하여 수탁자 또는 수허가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어 본관의 리모델링 완료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지?

답변: 현재 해당 공간을 운영 중인 법인이 금번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본관 리모델링 완료 후 통합하여 추진할 민간위탁 또한 동일 법인이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만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함.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3089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산림박물관은 서울시 내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 서울시의 문학 중심지이자 시민과 문학인이 중심이 되는 문학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로,
- 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나. 시설개요

- 시설명 : 산림박물관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길 65
- 시설규모 : 대지 1574.7 m^2 , 연면적 596.39 m^2
(산림박물관 지상 2층, 주차장)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 강당, 사무실 등
- 개관일자 : 2026. 4월(예정)

다. 위탁기간 : '26.3.27.~ '28.3.26.(2년)

라. '26년 예산요구(안) : 285백만원

마. 위탁사무

- 산림문학관 시설 관리 총괄(운영, 안전, 유지보수 등)
- 문학 행사(전시, 시상식, 강연 등)를 위한 공간 제공 및 행사 지원
- 시민 대상 문학프로그램 기획·운영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자심의위원회)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본 사업은 시민·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프로그램실, 문학 행사를 위한 대형 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문학예술 플랫폼 운영을 통해 문학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 문학은 예술 분야의 원천이 되는 기초예술의 핵심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기존 문학 향유자인 시민들이 창작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문학인들의 실제 수요에 맞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학 관련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역량있는 민간기관을 선정·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나. 예산조치 : '26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이승민 (☎2133-2560)